

# 서울시 “면허반납시 교통카드 드려요”

서울시내에서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만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던 서울시는 운전면허 반납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유인책을 내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358건, 2014년 3886건, 2015년 4158건, 2016년 4588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5021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역대 최대치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52명, 2014년 55명, 2015년 62명, 2016년 50명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17년 63명까지 늘었다.

부상자 역시 2013년 4646명, 2014년 5409명, 2015년 5631명, 2016년 6311명으로 늘었고 2017년 역대 최대인 6959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내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

##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작년 5021건 역대최다

##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원 충전

드는데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접이 주목할 만하다.

2013년에 비해 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하는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259명에서 138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가 15.9% 늘었

고 이들 중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면허자수 대비 반납률은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려진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최대 1000명에게 제공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 면허반납 창구를 방문해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누리집(교통분야)에 공개된다. 신청된 65세 이상자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에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천막을 자진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의 모습

## 광화문 세월호 천막 오는 18일 철거

### 전시공간 내달 12일 공개

2014년부터 설치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오는 18일 철거된다. 서울시는 철거 후 현 분향소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조성해 다음달 12일 공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돼 왔던 세월호 천막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철거된다. 현재 세월호 천막 내에 존치된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문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철거 후 새롭게 조성되는 세월호 추모 공간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에 북조형대의 면적 79.98㎡ 규모로 조성된다.

추모 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고 동시에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직접 운영하며 유가족 및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실은 '기억을 담은 오늘'

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민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인터랙티브 조명은 사람과 주변 환경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조명을 말한다.

전시실2는 '내일의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 단말기) 전시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을 선정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한다.

이울러 시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전시공간을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세월호 유족 측은 추모공간 '상설화' 여부를 놓고 이점을 보여왔다. 시는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추모공간이 철거돼야 하는 '임시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세월호 유족은 '상설화'를 요구하며 시 입장에 반발한 바 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재로 조성된 기억 및 전시공간은 세월호 기억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5주기 추모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 올 겨울 서울서 노숙인 사망 단 한건도 없었다

### 오늘 한파대책본부 운영 종료

서울시는 올 겨울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 결과 노숙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4개월간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15일 제설·한파 상황실 운영을 종료했다.

시는 노숙인·쪽방주민·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일 안부전화, 현장 순회진료 등을 통해 건강을 점검했다.

시는 노숙인 응급 잡자리·급식제공, 무료진료·순찰 등 3만 6596건, 쪽방촌 방문진료·보호조치, 시설점검 등 1만523건 독거노인 방문·전화, 진료 등 9만 5747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한파 특보 발령시 시와 25개 자치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에서 5개반이 주·야간 6명 2교대로

근무했다.

한파특보 기간 동안 어르신 돌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 인력과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파 재난도우미 2만2152명이 방문 또는 전화로 취약계층을 보살폈다.

시는 혹한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관련 시설, 계랑기 등 한파 취약시설물을 점검했다.

시는 계랑기 등과 1636개소를 복구했다. 119 순회 급급대는 취약지역 순찰 238회, 저체온증 등 응급조치 33명 등 실적을 냈다. 가스·전력시설 등 한파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3003회 실시했다.

제설 대책기간에는 연인원 3만 9597명, 장비 9509대, 제설제 1만 8572t 등이 투입돼 14회에 걸쳐 제설작업이 실시됐다.

시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으로 강설정후를 포착해 사전 제설준비하고 초동제설 효과가 좋은 원격 자동영상 살포장치를 확대 설치했다.



## 서울시, 9월부터 동물보호센터 운영한다

서울시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를 활용해 동물보호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동물 교육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인천 선주지동에 설치된다. 시설규모는 관리 컨테이너 4동 120㎡, 축사 4동 1200㎡ 등 총 1320㎡다. 축사, 운동장, 미용·목욕실, 수영장, 상담실, 관리실 등이 갖춰진다.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입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및 긴급구조 동물의 보호와 입양 대기 역할을 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교육센터는 경기 남양주시에 마련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규모는 120㎡다. 개방형 컨테이너 4동에 입양 대기실·상담실, 동물보호 커뮤니티룸 등의 시설이 구축된다.

수용 규모는 개 40마리, 고양이 20마리 등 총 60마리다. 유기동물 입양상담과 시민커뮤니티 지원 등을 담당한다. 1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반려동물 교육센터도 120㎡ 규모로 컨테이너 4동으로 만들어진다. 사업비는 1억원이다. 사회화 교육실, 개별 상담과 커뮤니티룸 등이 시설이 들어선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